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4개 시설공사업단체,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시설공사업단체는 지난 8월 1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정양호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문창수),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등 4개 시설공사업단체는 8월 12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시설공사업 상생 발전을 위한 정양호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협회는 건의사항으로 △기계설비 분리발주 △전문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 완화 △시설공사의 '설치조건부 물품 계약' 지양 등을 건의했다. 특히 4개 시설공사업단체는 “태양광발전 설비나 CCTV, 공기조화기 등을 설치하는 시설공사가 '설치 조건부 구매발주' 형태로 발주되면서 시설공사업체들에 제조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

적하며 “중소시설공사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과 시공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설치조건부 구매 발주를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회장 “기계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녹색건설 발전을 위해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의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달청에서는 2012년 국가기관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더욱 확대기로 결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건설산업은 크게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으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로 독립된



이상일 회장은 “기계설비의 시공품질 향상 및 녹색건설 발전을 위해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균형감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건설업 전체의 대내외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문체계와 시공기술 요구하고 있으며 전기·통신 공사는 개별법에 의해 분리발주 되고 있으나 기계설비는 독자적인 법이 없어서 만년 하도급으로 시공품질이 저하되어 에너지 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회장은 또 “공공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은 기계설비의 시공품질 향상 뿐만 아니라 녹색건설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더욱 확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한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검토” 답변

정양호 조달청장은 “건설업은 종합건설,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전문공사업 등 매우 복잡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종별 시공영역 또는 분리발주 등 민감한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균형감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건설업 전체의 대내외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해 줄 것”에 대한 이상일 회장의 요청에 정양호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요청이 없으면 분리발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한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양호 청장은 공동 건의사항인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신용평가기준) 평가 완화’ 건의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관련 사항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여 하반기까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설치조건부 구매발주 지양’ 요청에 대해서는 “설치의 전문성 및 설치비 비중에 따라 공사 발주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직위
조달청	정양호	청장
	최용철	시설사업국장
	이현호	시설총괄과장
	박성익	건축설비과장
	김익수	시설사업기획과장
	손병진	예산사업관리과장
	박양호	공사관리과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성창진	경영부회장
	조현일	정책본부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
	문제민	상무이사
	이흥우	전기신문 부사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문창수	회장
	차양신	부회장
	이광희	정책사업본부장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회장
	서상태	부회장
	서영웅	이사

4개 시설공사사업단체 공동 건의 내용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신용평가기준) 평가 완화

▶ 개요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기준이 행정자치부 기준에 비하여 높은 기준으로 규정
-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표 (조달청 · 행자부 기준 비교)

▶ 민원 사항

-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에 비하여 시설(전문)공사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적격심사 신용평가기준 적용시 대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

-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민원 발생

▶ 건의 내용

- BB+, BBO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중소 시설(전문)공사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요청

■ 설치조건부 구매발주 지양 요청

▶ 개요

- 발주 편의상 시설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조건부(현장설치도) 납품”으로 발주하는 사례 발생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표

구분	조달청					행자부	
금액기준	100억 이상				100억미만 ~ 50억이상	50억미만 ~10억 (전문 3억) 이상	금액동일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등급제한 이외공사	등급제한공사					
		1, 2등급업체	3등급업체	4등급이하			
A+	35.0	35.0	35.0	35.0	15.0	15.0	35.0
A0	34.7	34.7	35.0	35.0	15.0	15.0	35.0
A-	34.4	34.4	34.7	35.0	15.0	15.0	35.0
BBB+	34.0	34.0	34.3	34.6	14.8	14.8	35.0
BBB0	33.6	33.6	33.9	34.2	14.7	14.7	35.0
BBB-	33.2	33.2	33.5	33.8	14.5	14.5	35.0
BB+,BBO	32.2	32.2	32.8	33.2	14.2	14.2	35.0
BB-	31.6	31.6	31.6	32.0	13.7	13.7	34.5
B+, B0, B-	29.3	29.3	29.3	29.5	12.6	12.6	34.0
CCC+	27.0	27.0	27.0	27.0	11.6	11.6	30.0

▶ 민원 사항

- 시공이 수반되는 제품을 “설치조건부(현장설치도) 납품”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제조업 등록을 요구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전문)공사업체는 입찰 참여자격 제한
- “설치조건부(현장설치도) 납품”은 시설공사업법 위반, 시공품질저하, 하자 책임불분명, 매출액 감소 등 중소기업(전문)업체의 경영환경악화와 동일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민원 발생

【자재(설치조건부)로 발주되는 주요공사】

- ◇ 전기
 - 태양광발전장치, LED등기구 설치 · 교체공사
- ◇ 통신
 - 폐쇄회로텔레비전, 구내통신설비 설치 · 교체공사
- ◇ 설비 : 공기조화기 설치 · 교체공사

▶ 건의 내용

-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인 경우는 공사로 발주 요청

건의 내용에 대한 조달청 조치계획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요청

- ▶ 수요기관이 공사 특성상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
- ▶ 조달청이 설계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경우 분리발주 적극 검토
-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공사 -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2015년 55건 23,71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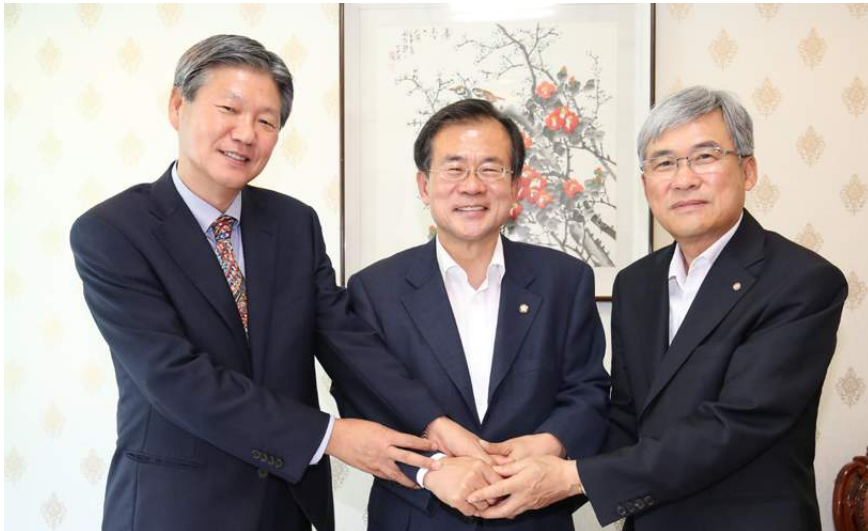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신용평가기준) 평가 만점기준 완화

-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100억원 이상 A+, 100억원 미만 A-)을 BBO(지방공사 만점기준과 동일)로 하향 조정
- ▶ 기재부 협의 및 계약예규 개정 이후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개정(12월)

■ 시설공사의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발주 지양 요청

- 시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발주 편의상 “설치조건부(현장설치도) 물품 구매”로 발주하던 것을 시설공사로 발주 요청
- ▶ 기재부와 협의하여 분리발주 또는 물품 ·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는 규정 마련(12월) 

윤영일 국회의원과 간담회



협회는 지난 8월 11일 윤영일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상일 회장, 윤영일 국회의원, 광주·전남도회 이연풍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영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에는 이상일 회장을 비롯하여 광주·전남도회 이연풍 회장과 성창진 경영부회장, 조현일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회장은 “정부가 2020년부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을 의무화하고, 2025년엔 이 방침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단열·기밀성을 극대화한 패시브 기술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액티브(active) 기술개발이 필수”라고 언급하며 “액티브 기술의 핵심인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

리 기준이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일부 산재되고 기계설비 관련 독립법령이 없어, 기계설비 에너지소비의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회장은 또 “동일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는 설계금액 대비 72% 수준, 전기공사는 80% 이상으로 낙찰되는 반면, 기계설비공사는 55% 수준에 하도급으로 시공되어 고품질의 기계설비 완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결국 과용량 설계, 시공품질 저하 등 에너지 과소비 원인을 제공하여 소비자인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상일 회장은 윤영일 의원에게 △국회 차원의 기계설비건설 육성방안 마련 △기계설비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폐지 및 활

성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영일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해왔던 기계설비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기계설비산업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차원의 기계설비건설 육성방안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의 기계설비 분야에서 연간 약 30조원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건축물 생애주기비용 중 기계설비 부분이 전체 비용의 80% 이상 차지
 - 기계설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과 건축물 생애주기비용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계설비 관련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모든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 적정 설계비, 시공비가 필수
- 정부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빌딩(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 건축물) 건축을 의무화 하고, 2025년엔 이 방침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
 - 건축물 단열·기밀성을 극대화한 패시브 기술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액티브(active) 기술개발 필수
- 기계설비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이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일부 산재되고 기계설비 관련 독립법령이 없어, 기계설비 에너지소비의 효율적인 통제·관리에 한계 발생
- 동일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는 설계금액 대비 72% 수준, 전기공사는 80% 이상으로 낙찰되는 반

- 면, 기계설비공사는 55% 수준에 하도급으로 시공되어 고품질의 기계설비 완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
- 결국 과용량 설계, 시공품질 저하 등 에너지 과소비 원인을 제공하여 소비자인 모든 국민에게 피해 발생

■ 건의사항

-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계설비기본법 제정 필요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개정하여 기계설비 육성 및 에너지 절감정책 마련 필요

2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기계설비는 토목, 건축과 별도로 독립된 학문 체계 및 시공기술 요구
 - 일반건축물 15~20%, 병원·연구소 20~30%, 플랜트공사 50% 공사비 차지
 - 건축물 생애주기비용 중 기계설비 부분이 전체 비용의 80% 이상 차지
- 기계설비 에너지 사용량 연간 약30조원으로 직

접시공과 정밀시공으로 시공품질 확보만이 아니라
너지 절감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 행정쇄신위원회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쇄신과제로 채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가능토록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행('94.6월)
- 국토부, 공공발주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 공문 시행('00.5.24)
- 박근혜 정부,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14.1.1)과 지방계약법시행령('14.11.24) 개정 시행
 - 분리발주 대상공사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규정
 -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시행여부 검토 의무 규정 추가
- 시행령 개정에도 대상에 기계설비공사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로 녹색건축물 달성이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 기계설비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

2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폐지 및 활성화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저가하도급, 불공정하도급 등 고질적인 폐해를 예방하고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09.4월)

- 국가정책조정회의(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합동)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발표('13.6월)
 - 기계설비공사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방식에 가장 적합한 업종임에도 발주실적은 저조함
 - ※ '15년 국가공사 11건 발주 : LH공사 대상공사 53건 중 8건, 철도시설공단 2건, 지역난방공사 1건
-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공사의 과도한 규제로 동일한 아파트 공사에서 LH공사는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 가능하나, SH공사는 불가능
 - 공동계약은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통한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생발전에 그 목적이 있으나, 주계약자공동도급에만 적용 대상범위에 제한이 있어 공동계약 도입 취지에 위배(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은 제한 없음)
 - ※ 국가공사는 공사금액(300억 이상)과 입찰방식(종합심사낙찰제)
 - ※ 지방공사는 공사금액(2억원~100억원)

■ 건의사항

-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제한규제(공사금액, 입찰방식) 폐지
-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전면 시행
 - LH공사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전면 발주 

기계설비건설협회·두원공과대학, K-MOVE 스쿨 입학식 개최



기계설비건설협회와 두원공대는 지난 8월 26일 두원공대 공학관에서 제3기 해외취업 플랜트/건축설비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정 (K-MOVE 스쿨) 입학식을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두원공과대학교(총장 이해구)는 지난 8월 26일 두원공과대학교 공학관에서 '제3기 해외취업 플랜트/건축설비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정(K-MOVE 스쿨)' 입학식을 개최했다.

제3기 입학생은 지난 8월 1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7개월간의 연수과정을 거쳐 기계설비건설업체에 배치된다.

이날 입학식에서 이해구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년 해외진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K-MOVE 스쿨을 주관함에 따라, 우리 대학은 대한



환영사를 하는 두원공과대학교 이해구 총장

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완벽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청년실업은 세계 모

든 선진국의 공통된 과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정 3대 과제로 부상할 만큼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데,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 청년을 세계무대로 진출시킬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해구 총장은 또한 “K-MOVE 스쿨 교육 과정은 참여회사의 의사에 따라 편성하고 강의도 직접 담당하는 등 참여회사 주도의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직무교육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수료생 전원의 해외취업 등 그 효과가 1기와 2기에 걸쳐 실례로 입증됐다”면서 “세계인과 경쟁하는 시대에 연수생 여러분이 적극 도전하고 개척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바라며, 훌륭한 인성과 인품을 갖춰 존경받는 대한민국 청년으로 성숙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협회는 국내 고학력 청년 취업문제 해소를 위해 두원공대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K-MOVE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연수기간 동안 받게 되는 모든 교육과 현장실습은 해외 및 국내 건설현장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과정에 충실히 하여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일 회장은 또한 “앞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과 의지를 잊지 말고 끝까지 매진해 훌륭한 직장인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짧은 교육기간 이지만 이 과정에서



격려사를 하는 협회 이상일 회장

배운 지식에 여러분의 노력이 가미된 현장실무가 접목된다면 앞으로 훌륭한 기계설비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K-MOVE 스쿨은 지난 2014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두원공과대학교가 산학협력을 체결, 회원사의 해외 기계설비현장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여 기계설비 관련 직무교육 및 외국어 교육 등의 연수과정을 통해 수료 후 1년간 의무적으로 해외 기계설비 건설현장에 파견된다.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현재 K-MOVE 스쿨 1기와 2기 수료생은 아프리카 2개국(나이지리아, 알제리), 중남미 3개국(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중동 5개국(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이라크),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중앙아시아 2개국(몽골, 카자흐스탄) 등 전세계 16개국 국가로 진출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

제35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 실시




협회는 지난 8월 4일 한국폴리텍대학(정수캠퍼스 제2공학관)에서 제35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을 실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8월 4일 한국폴리텍대학(정수캠퍼스 제2공학관)에서 제35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을 실시했다.

이번 실기검정에는 지난 7월 서류심사를 통과한 69명(배관 47명, 공조냉동기계 9명, 생산자동화 6명, 용접 7명)이 실기검정에 응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번 실기검정에 참관한 백종윤 인정기능사 심사위원장(서울특별시회 회장)과 김석환 위원(경기도회 회장)은 열심히 시험에 임하고 있는 응시생들을 격려했다.

백종윤 심사위원장은 응시생들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은 건설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므로, 현장에서 갈고 닦은 여러분의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많은 분들이 합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합격자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11월 중 교부할 예정이다. 

제67차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개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8월 2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7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두형)는 지난 8월 2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7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독거노인 가스타이머 콕 및 휴대용가스렌지 무료보급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두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간사님들의 큰 성원으로 독거노인 550세대에 대한 무료 가스안전점검과 가스타이머 콕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면서 “지난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보니 기본적인 가스시설마저 없는 세대도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올해 휴대용 가스렌지와 부탄연료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두형 위원장은 또한 “올해도 보급사업에 간사님들이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무료보급사업에 지역 자치단체장과 가스관련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언론에 협회 위상정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우리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


독거노인 가스타이머 콕 및 휴대용가스렌지 무료보급사업 선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두형)는 지난 8월 2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이상일 회장, 정달홍 부회장, 강신구 상임부회장, 성장진 경영부회장과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이두형 위원장 및 간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독거노인 가스타이머 콕 및 휴대용가스렌지 무료보급사업”을 선포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도회 가스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들은 오는 12월까지 전국 독거노인 1,255 세대를 방문해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타이머 콕과 휴대용 가스렌지 및 부탄연료 등을 무상으로 설치·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가스 중간밸브에 장착되는 가스타이머 콕은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는 장치로서, 독거노인 세대의 가스로 인한 과열화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2015년 무료 보급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해 550 세대에 설치했으며, 올해는 대상 세대와 지원 물품을 대폭 확대했다.

이두형 위원장은 “지속적인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추진과 가스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8월 2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독거노인 가스타이머 콕 및 휴대용가스렌지 무료보급사업”을 선포했다.



제299차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8월 1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제29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9월 업무 추진 계획 및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백종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SH공사 개별난방전환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과도하다는 민원에 따라 우리 시회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SH공사와 협의하고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종윤 회장은 또한 “십여년 만에 최악의 폭염인데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유념해주

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회 9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9월 업무추진 계획

- 제8차 차세대기계설비건설인협의회 개최
- 분리발주 현장 안전(품질)점검 실시
- 노무강습회 개최
- 분리발주·주계약자 업무추진 및 수주회원사 사후관리 방문상담
- 비회원사 방문 가입 상담
-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여
- 서울시회 및 인천시회 친목행사 개최
- 2016년도 회원명부 제작·배부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8월 1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제29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진주교육지원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저소득층 급식비 후원



진주교육지원청(7.20)




창원교육지원청(7.28)

울산 · 경남도회(회장 김원열)는 지난 7월 20일과 7월 28일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만옥)과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학)을 방문해 울산 · 경남도회 산하 경남서부협의회(회장 최만환)와 경남중부협의회(회장 박판흠)가 모금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후원금을 기탁했다.

창원 · 진주지역 회원사는 진주교육지원청 권만옥 교육장과 창원교육지원청 안병학 교육장에게 급식비 후원금을 전달하며 “어렵고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사들이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 · 경남도회는 “양질의 교육시설이 구축되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공사의 지속적인 분리발주를 부탁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시설 관계자들은 “건설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우학생들을 위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기계설비분리발주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 경남도회는 국민 친화적인 기계설비 건설업 홍보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후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공청회에서 찬성의견 피력



경기도회는 지난 8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조례안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경기도회 김석환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사는 지난 8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조례안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 수원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회는 조례안 의견서를 통해 "경기도내 공공건축물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는 대부분 건축공사에 포함돼 발주되고 있으며, 기계설비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로부터 직접공사비에 훨씬 못 미치는 저가로 하도급 받는 실정으로 공사품질 저하 등의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해 권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관내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면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경제민주화 및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계설비공사업 발전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시공의 전문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으로 에너지소비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므로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 간사(더

민주, 파주)가 좌장으로 토론 진행을 맡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사회 김수철 경영지원본부장,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은영 수석연구원, 경기도 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김수철 경영본부장

김수철 경영본부장은 패널토론에서 “잘못된 관련법 제도는 오래된 관행이나 관습을 벗어나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정의사회가 구현된다”면서 “경기도에서 제정코자 하는 이번 조례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니,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경기도민에게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철 경영본부장은 또한 “국민의 생활향상과 더불어 건축물의 쾌적성과 편리성, 그리고 경제성

이 부각됨에 따라 기계설비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장인은 물론 가정주부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현실을 직시하여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건축공사에서 떼어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조현일 정책본부장은 이날 플로어 발언을 통해 “건설산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저가하도급으로 야기되는 공사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이번 공공시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은 매우 합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현일 정책본부장

한편,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 심의는 10월로 연기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도회의 많은 회원사가 참석해 조례안 찬성 의견에 힘을 보탰다

2016년 하반기 산학협력협동 장학증서 수여식




경기도회는 지난 8월 23일 경기도회 사무처에서 2016년 하반기 산학협력협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회(회장 김석환)는 지난 8월 23일 경기도회 사무처에서 2016년 하반기 산학협력협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경기도내 6개 대학(대림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한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유한대학교) 건축설비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 총1,8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경기도회 김석환 회장을 비롯하여 김지희·양태천 부회장, 민광기 감사, 이규식·이주환 본회 이사가 참석했으며, 대림대학교 오병길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이태희 교수, 신한대학교 권용일 교수, 용인송담대학교 서병택 교수, 유한대학교 정기범 교수가 참석했다.

김석환 회장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에 더욱 매진하여 미래 기계설비업계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격려했다.

경기도회는 기계설비건설업계 후진양성과 기계설비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6개 대학교에서 추천된 모범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생 명단

성명	학교 및 학과	학년
이승준	대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3
박성일		2
안지훈	수원과학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2
황보우		1
김태진	신한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3
신승우		3
김승일	두원공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1
허인영		1
이인환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1
김윤영		1
박성운	유한대학교 건축설비플랜트과	2
방진혁		2